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시민이 행복 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	
		배포일자	2023년 7월 6일(목) 총 2매		
담당 부서	대기보전과	담 당 자	• 대기정책팀장 윤은주 ☎440-3501 • 담당자 이현지 ☎440-3504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제4차 계절관리기간 대기오염물질 50.5톤 감축
- 관내 43개 사업장과의 협약 통해 이뤄낸 성과 -
- 협약이행 사업장에 자가측정 주기완화 인센티브 및 우수사업장 표창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제4차 계절관리기간('22년 12월 ~ '23년 3월)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결한 자발적 협약 이행 결과, 대기오염 물질을 총 50.5톤 감축했다고 밝혔다.

‘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’은 2021년 1월 인천시와 인천 소재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43개 사업장이 계절관리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체결한 것으로,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개선 및 친환경 연료 전환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.

제4차 계절관리제 협약 참여 사업장들은 총 690억 원을 투자해 ▲저녹스 버너 교체 ▲노후 방지시설(흡수·흡착시설) 교체 보수 ▲공정별 에너지진단 ▲친환경·자동화 설비 투자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며, 이를 통해 총 50.5톤의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했다.

인천시는 협약 이행 사업장 중 성과 달성에 크게 기여한 우수사업장으로 (주)셀트리온 제2공장을 선정해 6일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.

(주)셀트리온 제2공장은 자발적 협약을 통해 저녹스버너 교체, 환경경영인증시스템 인증, 사회가치경영(ESG) 위원회 구성 등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, 대기오염물질 총 4톤을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그밖에 시는 대기오염물질을 5% 이상 감축한 12개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독려했다.

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“시민이 공감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협약사업장의 많은 협조와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” 고 말했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'보도자료'에 게시될 예정입니다